

예레미야 33:1-3

- 0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 0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 0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약

- 1. 기도 응답의 시작 -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이다.
- 2. 세상 사람들은 99%가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 모른다. 노력해서 된다.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 온다.
- 3.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왜 우리는 무능한가?

▣ 서론_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 - 배경

- 1.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 1) 창 3장 에덴동산 사건 -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라.”
 - 2) 창 6장 사탄에게 잡힌 네피림 - 접신운동, 명상
 - 3) 창 11장 바벨탑운동 - “사상, 이념, 패권 정신으로 뭉치자.”
- 2. 먼저 복음 받았지만 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 7번 재앙 당했다.
- 3.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 -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된 것이 없다.
 - 1) 들린 소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잠깐 힘이 있을 수 있다.
 - 2)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하라
 - 3)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언약으로 잡아라.

▣ 본론_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았는가

- 1. 당연 - 문제 왔을 때 당연성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 1)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99%이므로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것은 당연하다.
 - 2) “일을 행하는 여호와”(흔들리지 말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두려워 말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보증)
 - 3) 렘넌트 7명이 본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 당연성 - 요셉의 형들, 사울,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핍박
- 2. 필연 - 하나님이 이때 너를 부르셨다.
 -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 24 해라. 25를 기다려라. 영원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 2)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확신) - 인간은 한계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 3)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 필연적인 계획을 두고 부르신 것이다.
- 3. 절대 -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것이다.
 - 1) 6절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 2) 7절 “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 같이 되게 하리라.”
 - 3) 8절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 4) 9절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 결론

- 1.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열린 것이다.
- 2.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세계를 살렸다.
 - 1) 다니엘
 - 2)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 3) 에스더
- 3.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를 살렸다.

녹취

▣ 서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때 금란교회, 명성교회, 여의도교회 공격을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악랄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보호할 사명 있기 때문에 전 교인이 모여서 공동의 회 기도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기도 응답의 시작 -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

특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렘넌트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린 소리에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때 스무 번가량 하나님의 음성들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한 스무 번가량 성경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응답은 여기에서 다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늘 하는 얘기인데 저는 늘 그게 응답으로 오니까요. 저는 고생하는 우리 부모님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 같은 거는 잘 체험을 못 하신 거 같다. 우리 부모님이 당한 저 필요 없는 고난은 없애 줘야 된다.’ 진짜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물론 배울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저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2. 세상 사람들은 99%가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 모른다. 노력, 최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 온다.

자, 이 세상에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99%의 사람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99%의 사람이 복음 모릅니다. 사실이거든요. 그중에 99%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내가 노력을 해서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맞는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 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왜 우리는 무능한가?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왜 우리는 없다고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무능하냐?”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에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만 생각했는데도 응답이 시작돼요.

▣ 서론_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 - 배경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가? 큰 배경 몇 개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시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1) 창 3장 에덴동산 사건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라.” 그제 창세기 3장 에덴동산 사건입니다. 참 위험한 말인데 귀에 쪽 들어오거든요. “네가 중요해.” “네가 네 안에 있는 왕을 찾아내야 돼.” 그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수행을 해야 돼.” “네가 부처가 돼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 모든 메시지가 거의 미국에서 다 나오니까.

2) 창 6장 사탄에게 잡힌 네페림

그런 줄 알았는데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 있지요. 네페림. 창세기 6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3단체에서 뭐합니까? 접신운동 하잖아요. 아주 수준 높게. 진짜 미국답게, 유럽답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상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거의 속고 있습니다. 틀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 정신병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제 하나님 됩니다.

3) 창 11장 바벨탑운동

“똑같이 사상, 이념으로 뭉치자.” “패권 정신으로 뭉치자.” 그제 바벨탑 운동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2. 먼저 복음 받았지만 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 7번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복음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겁니다.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오.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어요. “야, 가.” “안 갑니다.” 이러지요. 웃기지요?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나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그때 요나가 한 말이 뭐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 한단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복음 전하니까 저것들이 회개하잖아요. 저것들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웃기지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재앙이 일어났던 거요.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 당한 거요. 기가 차지요.

3.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 -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된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 틀린 소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잠깐 힘이 있을 수 있다.

이 틀린 소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잠깐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중에 골자가 뭐였습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바벨론이 와서 우리나라를 포로 해 간다.” 골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죄를 정한 거요. 친 바벨론파.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했는데, 그걸 듣고 믿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친 바벨론파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둔 겁니다. 그래서 사형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위대 뜰에 간헐다 이 말이오. 잡아 가두는데도 여러 종류거든요. ‘시위대 뜰’ 이 말

은 굉장히 무서운 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에 대한 반란범.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내란범.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데예요.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가둔 거예요. 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언약으로 잡아라. 단 한 번도 성취 안 된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성취 안 된 적이 없어요.

‘천지에 깔린 게 목사인데 전도는 안 되고 있구나.’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많은데 교회는 문을 닫고 교인 수는 주느냐?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미국에, 유럽에 중요한 신학교가 많은데 교회는 문 닫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신 문제 와서 마약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뭐 할 거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 본론_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았는가

자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았나 하는 겁니다.

1. 당연 - 문제 왔을 때 당연성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첫째입니다. 시위대 뜰에 간헐 있는데 임했단니까요. 당연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름을 설명했습니다. 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가장 발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당연성.

1)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99%이므로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것은 당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99%인데 예레미야를 집어넣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부터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도 다릅니다. 뭐라고 말했을 줄 압니까?

2) 일을 행하는 여호와(흔들리지 말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두려워 말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보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일을 누가 행했단 말입니까? 여호와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지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당황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 뒤에 중요한 보증이 나왔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루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동네 아저씨가 얘기해도 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3) 렘넌트 7명이 본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 당연성 - 요셉의 형들, 사울,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핍박

렘넌트 7명들이 본 축복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작은 뭐냐? 당연성입니다. 먹는 거밖에 모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경쟁심만 배운 사울이 귀신 들리는 거 당연합니다. 직업과 성공인 줄 알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제사장, 서기관 무리들이 당연합니다. 핍박 틀린 거 하는 거는.

근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게 첫 번째란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첫 번째요.

2. 필연 - 하나님이 이때 너를 부르셨다.

두 번째 게 나왔어. 필연적인 게 나왔어요. 왜? 이때 “너를 불렀다.” 이거요. 어떤 사람 “왜 나만 병들니까?” 이겁니다. “너를 불렀다.” 이거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진짜 그거는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 말이요. 필연성.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그냥 “기도하라.” 이러지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마.” 이 말이요. “24하라.” 이 말이요. “25를 기다리라.” 이 말이요. “영원한 작품 나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2)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확신)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끝난 겁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필요요? “내가 네가 응답하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거보다 더 많아요. 너무 많지요. 우리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럼 그 사람을 믿어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지요.

3)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인 계획을 두고 부르신 거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99% 하나

님을 모르고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요? 근데 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요. 이게 중요한 거요. 거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요. 필연적 사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립니다.

3. 절대 -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것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응답이 나왔어요. 당연, 필연, 절대.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거요. 뭐라고 말할 줄 압니까?

1) 6절 하나님이 성음을 치료하실 것이다.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음을 고쳐 치료하리라.” 하나님이 성음을 치료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너를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기도하도록 불렀다 이거요. 지금 갇힌 거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를 전달합니다.

2) 7절 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 같이 되게 하리라.

7절에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같이 되게 하리라.”

3) 8절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8절에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사하지 아니하면 없어도 안아요.

4) 9절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9절에는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소식을 듣고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렘넌트 7명이 다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 결론

웃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딱 돌아가니까 우리 동네 귀신 들린 비슷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집에 찾아왔어. 우리 어머니보고 한 얘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러는 거요. 이상한 무속인 비슷한. 그때 우리 어머니의 대답이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귀신 들렸지 않냐? 네가 망했지.”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나는 미래가 있는데 자식도 있어. 너는 그것도 없지 않냐? 네가 망했지.” 우리 어머니 화가 났는지 그 말이예요. 내 속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너나 잘해라.’ 말을 못 하고. 그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어머니는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 왔는데도 언약 놓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어려운데 상관없이 언약 잡고 기도

한 거요.

1.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길이 막힌 게 아니고 길이 열린 것이다.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길이 막힌 게 아니고 그제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막히거나 어려움 왔을 때 보세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그제 길이 보입니다. 그제 길이라니까요. 막힌 게 아니요. 열린 겁니다.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열린 걸 설명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렇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 성음을 치료하겠다. 포로 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열방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답이 다 나왔어요. 이걸 예레미야 잡고 전달한 겁니다.

2.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전부 세계를 살렸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전부 세계를 살리게 됐어요. 그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거기서 죽었는데 언약 잡은 사람이 세계를 바꾼 겁니다.

1) 다니엘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켜 도울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거요.

2)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준 거요. 그렇지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지혜와 도움을 준 사람이 다니엘이요.

3) 에스더

아하수세로 왕에 감동을 준 사람이 에스더예요. 왜?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요. 오늘 잡으세요. 문제가 왔다? 잡기 딱 좋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 잡기 힘들어. 문제 왔다? 잡기 너무 좋잖아요. 언약으로 잡아 보시라니까요.

어린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는 얼른 가서 답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척하지만, 입으로는 조롱하는 거지요. 어릴 때 부모 잃고 성공한 사람 명단 뽑아서 갖다줬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딱 쓰고. 애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3.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를 살렸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왕들을 살린다니까요. 왕들 그냥 왕이 아니요.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를 살린 거요. 그리고 올해 주제가 뭐냐? 황제를 살린 진짜 영적 황제. 이 복음의 능력을 끝이 없습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거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 그랬지요. 거기에 쳐들어온 사람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에 황제란 말이요. 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 모든 우상을 다 만들어. 그때 하나님이 그걸 쳐버린 거요.

몽골 시대가 온 거지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800년 동안 그냥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석유 때문에 또 살아난 거라. 그러다가 완전히 우상보다 더 무서운 모슬렘이 들어서서 그 나라를 장악한 거예요. 이란 얘기합니다.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 얘기를 왜 하느냐? 바벨론 정복해서 세계를 움직인 게 이란이었다니까요. 지금 바벨론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기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틀린 세상 것 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